

배포 일시	2022. 6. 15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장창석 (044-201-4294)
	항공교통과	담당자	사무관 홍성민 (044-201-4295)
보도일시	2022년 6월 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김포국제공항 지상 이동지역 안전·효율 높인다

-계류장관제업무 전담 관제소 신설,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6일 새벽 1시부터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를 신설·운영한다고 밝혔다.

○ 지금까지 김포공항 내 모든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소속 ‘김포 관제탑’에서 수행해 왔으나, 새롭게 신설되는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.

□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시작한 시설개선 사업(약 26억)을 통해 舊 관제탑을 리모델링하고 조직과 인력 확보는 물론 시설 운영절차 수립 등 계류장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었으며,

○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*을 취득(22.3.7)함에 따라 공식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으로 출범 하였다.

* (항공교통업무증명)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필수요건과 유지관리 체계 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, 정석비행장, 한서대에 이어 한국공항공사가 민간기관 중 네번 째로 취득

○ 이로써,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, 관리, 운영, 항공인력 양성 등 기존 업무영역에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경력을 추가하게 되어 향후 해외 공항개발사업 및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신설 김포계류장관제소는 국내선 및 국제선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 관제업무, 차량 및 인원의 통제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.
- 관할구역을 4개(북/동/서/중앙)로 구분하여 정밀하게 통제하며, 항공기 이동개시 시간 등 공항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정보를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관리·활용하여 공항내 이동지역 안전과 운영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.
- 아울러, 그간 김포 관할 구역은 물론 이동지역 차량과 사람까지 통제해야 했던 김포관제탑 관제사는 이륙·착륙 항공기 관제에 집중하고, 계류장에서의 움직임은 신설되는 계류장 관제소가 관장하여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김포계류장관제소 개소식(6.15, 14시)에 참석하여, “최근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항공안전과 교통량 관리에 기여할 의미있는 시설이 마련된 만큼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할 예정이다.
- 유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“공사의 고품질 계류장관제 운영을 통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국토교통부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실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장창석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민 (044-201-4296)
부산지방항공청 <공동>	한국공항공사 계류장관제인수운영부	책임자	부 장	도진열 (02-2660-2091)
		담당자	과 장	김세은 (02-2660-209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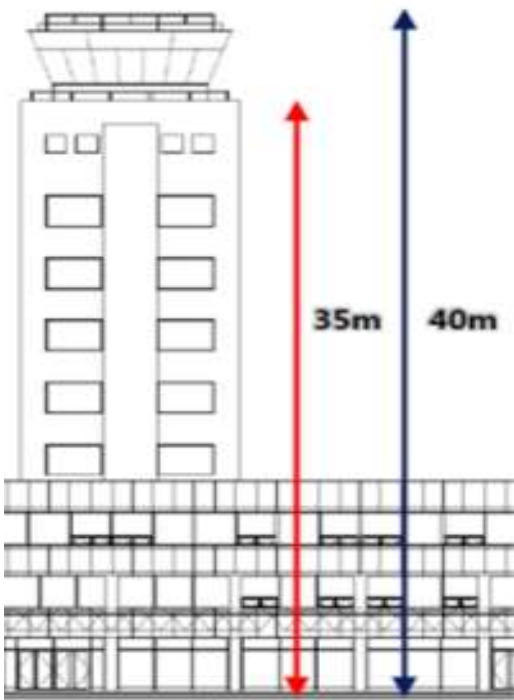
참 고

계류장관제소 관할구역 및 부대시설 구성

□ 관할구역 : 북측 / 동측 / 서측 및 중앙 계류장



□ 부대시설 구성



층별 시설

- 10층 : 관제실
- 9층 : 통신장비실
- 8층 : 휴게실(여)
- 7층 : 휴게실(남)
- 6층 : Stand-by Room
- 5층 : 예비시설
- 4층 : 회의실 및 교육훈련장
- 3층 : 예비시설
- 2층 : 계단실
- 1층 : 출입통로